

북스

Books

뻔뻔한 간신 억울한 간신

사람이 누군가와 인연을 맺는 것은 필연이다. 개인들의 만남은 사적인 차원에 머물 수 있지만, 한 나라를 좌우하는 위치에서의 인연은 그리 간단치가 않다. 긍정적인 만남은 당사자들의 인생을 살찌우는 것은 물론 역사를 순방향으로 이끈다. 그 반대편 만남은 역사에 오점을 남기거나, 사회에 커다란 해악을 끼친다.



용렬한 임금 주변에는 항상 간신이 있었다는 게 역사적 상식이다. 이들의 부적절한 만남은 역사에 슬픈 오점을 남기곤 했다. 사진은 영화 '왕의 남자' 가운데 한 장면.

다시 쓰는 간신열전 최용범·함규진 지음

이같은 맥락에서 '다시 쓰는 간신열전'은 한국사에 등장하는 간신 22명의 부정적인 삶을 통해 오늘의 교훈을 찾아보는 역사적인 배움을 제공하는 책이다.

공동 저자인 최용범·함규진 씨는 백제의 도림을 비롯해 구한말의 이완용까지 간신을 '왕의 남자', '실세간신', '모든 기준은 대세' 등의 범주로 나눠 분석을 시도한다.

'왕의 남자'에는 임금에게 아첨해 나라의 안위를 위협한 인물들이 등장한다. 도림, 묘청, 김존중, 김응, 홍국영이 그들이다.

묘청은 왕의 총애를 등에 업고 서경천도를 강행하다 실패하자 금나라를 정벌하자는 허황된 주장을 폈다. 그는 이마저도 여의치 않자 '칭제건원'과 '금국정벌'을 내걸고 반란을 일으켜 역사에 오명을 남긴다.

백제 도림서 구한말 이완용까지

한국사 등장 간신 22명 재조명

'왕의 남자'로 만족하지 않고 왕권까지 농락한 간신으로는 조선 전기의 윤원형이 대표적이다. 명종 때 왕실의 외척으로 우의정에 오른 윤원형은 수군의 군용선을 '뇌물선'으로 만든 데 그치지 않고 공납과 국유재산도 빼돌렸다. 윤원형의 세도는 왕권으로도 통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

저자들은 "왕권을 농락했던 함명회는 실질적 공로도 많지만 윤원형은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는 것 외에는 역사에 남긴 것이 없다"는 혹독한 평가를 내린다.

'진정한 간신인가, 역사의 희생자인가'에서는 간신으로 남은 역사적 인물을 재조명하고 있다. 저자들에 따르면 남근의 '주초위왕' 사건은 날조된 것이고, 함명회는 '살생부'를 만들지 않았다. 신돈, 원균, 이이첨도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는 인물들이다.

임사홍은 연산군에게 생모 윤씨의 혈흔이 묻은 금삼을 건네 갑자사화를 일으킨 장본인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연산군은 이미 생모의 죽음을 알고 있었으며, 단지 임사홍은 자신의 억울한 귀양살이를 윤씨의 처지에 빗대 연산군에게 하소연했을 개연성이 높다는 것이다.

고려와 조선왕조를 거치는 동안 선비들은 신념 때문에 죽음을 맞는 게 다반사였다. 이 때문에 시류에 편승하거나 신념과 인간성을 버린 사람들은 어김없이 간신의 명부에 올랐다.

이완용이 대표적이다. 많은 사람이 그를 친일파로 기억하지만 그는 친일파이기 이전에 친청파, 친미파, 친러파로 변신을 거듭한 인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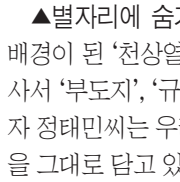
이처럼 역사적 대의를 외면하고 사욕을 위해 대세를 따랐던 인물로는 송유인, 유자광, 김자점 등이 있다.

저자들은 "이 책을 통해 자신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약한 면, 간신이 될 수 있는 면, 간신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면을 통찰하고,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페이퍼북·1만2천원〉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인류이야기=네덜란드 태생의 AP통신 기자 출신인 헨드릭 빌렘 반 룬(1882~1944)의 베스트셀러. 1921년 출간돼 30여개국에서 번역·출간되는 등 서양사의 입문서로 각광받고 있다. 이종훈씨의 편역을 통해 재구성돼 16부로 다시 묶였다. 〈서해문집·1만3천9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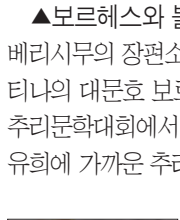
▲별자리에 숨겨진 우리 역사=새로운 1만원권 지폐의 뒷면 배경이 된 '천상열차분야지도'를 따라 천문학서 '천문류초'와 역사서 '부도지', '규원사화'를 나침반 삼아 떠나는 고대사 여행. 저자 정태민씨는 우리 별자리가 한국 고대사의 주목할만한 사건들을 그대로 담고 있다고 주장한다. 〈한문화·1만5천5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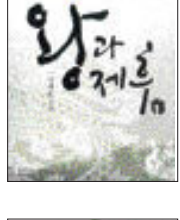
▲고비=최승호 시인이 고비 사막을 여행하며 쓴 시들을 엮은 시집. '사막의 문체'에 대한 궁극점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5월 열흘 간의 고비 사막 여행을 떠났고, 당시의 느낌을 75편의 시로 선보였다. 사막에서 새로운 시인의 리듬이 태어난다. 〈현대문학·7천5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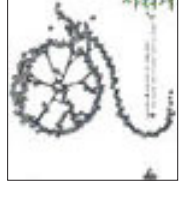
▲가난한 휴머니즘=카리브해의 가장 가난한 나라 아이티공화국의 대통령을 네비이나 지냈으나 네비 모두 임기를 마치지 못했던 장 베르랑 아리스티드가 세계인에게 보내는 아홉 통의 편지. 가난한 나라와 부유한 나라의 현실을 설득력 있게 표현하고 있다. 〈이후·8천5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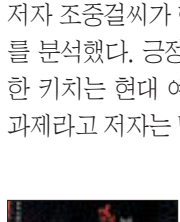
▲보르헤스와 불멸의 오랑우탄=브라질 작가 루이스 페르난두 바리시우의 장편소설. 환상과 복잡한 상징을 주로 사용했던 아르헨티나의 대문호 보르헤스를 형상화한 주인공이 등장한다. 주인공은 추리문학대회에서 벌어진 살인사건을 두고 범인을 찾기 위해 지적 유희에 가까운 추리를 시도한다. 〈웅진지식하우스·9천800원〉



▲난세에 살아남는 왕과 제후(전 3권)=대중역사소설가 이재운씨의 장편소설. 춘추시대의 첫 패권자 제환공이 어떻게 관중과 포숙아를 등용해 국력을 키웠으며, 진(秦)나라 목공은 어떻게 시황제에게 나라를 물려줄 수 있었는지 그려냈다. 〈현문미디어·각 권 9천500원〉



▲초록색 자전거=장애인 부모들이 들려주는 63편의 이야기를 엮은 책. 장애인 자녀로 둔 순간 부모들은 분노, 슬픔 등으로 범벅이 된다. 고통스러운 현실을 벗어날 지름길은 없으나 이겨낼 방법은 분명 존재한다는 것을 담담하게 들려준다. 〈침림출판·1만3천원〉



▲키치, 우리들의 행복한 세계='열정적 고전읽기' 시리즈의 저자 조종걸씨가 현대 문화·예술의 한 현상으로 자리잡은 '키치'를 분석했다.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용어 자체의 정의도 모호한 키치는 현대 예술가들이 극박의 대상으로 삼아야 했던 선결과제라고 저자는 말한다. 〈프로네시스·1만1천원〉



▲블랙 자코뱅=세계사에서 유래 없는 노예혁명을 통해 아메리카 대륙에서 미국 다음으로 독립한 아이티공화국의 아이티혁명을 다룬 역사소설. 프랑스 혁명의 자극에 의해 시작됐지만 프랑스군을 물리친 아이티혁명은 아프리카에서 쿠바에 이르기까지 제3세계 해방운동의 도화선이 됐다. 〈필맥·1만6천원〉

여행가 이지상씨 베트남·캄보디아 여행기 2권 펴내



해외여행이 자유화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지역 중 하나가 동남아다. 특히 베트남과 캄보디아는 비교적 저렴한 가격, 부담없는 비행시간, 그리 크지 않은 문화 차이 등으로 광주에서도 자주 지향로가 개설되고 있다.

경력 18년의 베테랑 여행가 이지상씨가 베트남과 캄보디아 여행기 두 권을 동시에 출간했다. '호찌민과 시골로'는 저자의 여섯번째 지역 여행기로, 1993년부터 2005년까지 네 차례에 걸쳐 둘러본 베트남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베트남전 현장 탐방은 다른 여행기에서 볼 수 없는 대목.

'혼돈의 캄보디아, 불멸의 앙코르와트'는 저자가 지난 1997년부터 5년에 걸쳐 여행했던 캄보디아를 다루고 있다. 신변잡기식의 여행기가 아닌 인문학적 지식이 결집된 글쓰기를 통해 캄보디아의 숨은 매력을 소개한다. 〈북하우스·각 권 1만3천800원〉

♂ ♀ 유전자로 풀어본 남녀관계

사랑과 성의 진실게임 타케우치 쿠미토 지음

어린 여자아이를 좋아하는 남성의 심리를 뜻하는 '롤리타 콤플렉스'나 연상의 여인을 좋아하는 남성의 심리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롤리타 콤플렉스의 경우 일부다처의 혼인 형태를 취하는 망토원숭이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다. 대부분의 성인 암컷이 다른 수컷의 아내로 있기 때문에 어린 암컷들에게 눈길이 간다는 것이다.

연상의 여인을 좋아하는 남성들은 침팬지의 행동을 관찰해보면 된다. 암컷 침팬지는 인간과 달리 폐경이 없기 때문에 발정 주기를 반복하고, 번식 능력을 갖고 있다. 더구나 나이 많은 암컷은 육아의 베테랑이어서 낳은 새끼가 무사히 자랄 가능

성이 있는 것이다. 아줌마를 좋아하는 남성은 침팬지의 유전자에 역제되지 못한 '격세유전'일 수 있다.

'사랑과 성의 진실게임'은 남녀 관계를 비롯한 인간 관계를 유전자와의 연관성에 따라 설명하고 있는 책이다. 동물행동학자인 일본인 저자 타케우치 쿠미코가 2002년 10월부터 1년 동안 주간지 '문예춘추'에 기고한 칼럼을 모았다. 다소 황당한 주장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저자는 나름대로 정확한 데이터와 출처를 밝히고 있다.

여자들이 원손잡이 남성을 좋아하는 이유는 우뇌가 발달해 있기 때문이다. 우뇌는 남성 호르몬의 일종인 테스토스테론에 의해 발달된다. 그래서 저자는 원손잡이 남성들의 생식능력이 높기 때문에 여성들에게 높은 인기를 누린다고 결론 짓는다.

저자는 또 임신을 하기 위해 매일 피임없이 성

행위를 하는 부부들에게, 역설적이지만 피임을 해야 임신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여성의 몸에 들어온 '이물질', 정자에 대한 저항력이 생기기 때문이다. '항정자 항체'는 정자가 빈번하게 침입하면 할수록 많이 만들어진다. 저자는 임신을 위해 몇 달 정도 피임을 해 항정자 항체를 줄이라고 충고한다.

남녀 관계를 설명한 것 외에 수컷의 지위에 따라 암컷도 지위가 올라가는 까마귀와 인간을 비교하는 등 동물행동학과 인간 육체의 비밀을 저자 특유의 윗트 섞인 글로 풀어낸다. 남녀 관계 또는 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탓에 미성년자가 보기에 민망한 것들도 있지만 책 사이사이에 섞인 우스꽝스러운 삽화도 볼거리다. 〈침어람·9천원〉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중국어 3개월이면 된다!!

매월 초 개강

- 1월 초: 중국어 기초 문법, 회화
- 2월 초: 중국어 회화 실용 문법, 회화
- 3월 초: 중국어 회화 실용 문법, 회화
- 4월 초: 중국어 회화 실용 문법, 회화
- 5월 초: 중국어 회화 실용 문법, 회화
- 6월 초: 중국어 회화 실용 문법, 회화

총학비 40만원

리틀자이나 中国語学院

광주광역시 서구 동천동 111-1호 TEL: 02-233-9582

토익 만점 기록 11회 대행진!

필사용 YEM 시사만어학원 조성훈 교수 권역 1위!

목표점수까지 무한반복수강!

- 880점 만점반
- 860점 목표반
- 800점 목표반
- 초등중학생반

동아외국어학원

예술의 거리 → 중앙초등학교 후문 사거리 입구 ☎082-222-6253